

## 비성조언어 억양을 배울 때 모국어가 성조언어인 학생들이 보여주는 특징에 관한 한 연구

배 명 숙  
주성전문대

### 1. 서론

제2외국어를 배우는 데, 성조언어와 비성조언어의 배경을 갖는 사람이 다른 성조언어 또는 비성조언어를 배울 때 성조의 유무에서 오는 언어 상의 차이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으며 그 필요성은 Lado(1957)가 주장하였으며 Selinker(1992)가 다시 강조하고 있다.

국어의 경상도말과 서울말은 성조에 있어서 다르다. 따라서 같은 모국어를 갖지만 성조에 있어서 다른 두 집단의 차이점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성조언어와 비성조언어의 큰 차이점은 단어억양의 유무를 들 수 있겠다. 성조언어에서는 문장억양이 기본적으로 단어억양으로 이루어지며 단어억양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문장억양이 단어억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 비성조언어에는 정해진 단어억양이 없으며 문장억양에 따라 단어억양이 변한다. 비성조언어인 영어를 배우는 데 성조언어인 경상도말과 비성조언어인 서울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지 살펴보자. 단어억양과 문장억양의 관계를 영어의 올림조를 사용할 때의 경상도 영어와 서울영어를 통해 살펴본다. 특히 문장강세와 단어강세의 위치의 영향을 살펴보자.

### 2. 문헌연구

영어를 배울 때 비성조언어와 성조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지 살펴보자. 먼저 비성조언어의 경우를 보면, 네델란드 영어(Jenner, 1976: Willems, 1982)와 베네주엘라 스페인 영어(Backman, 1979)에서 좁은 고저범위와 비강세 음절의 높이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된다. 성조언어의 경우는, 태국 영어(Radaravanija, 1965: Selinker, 1992: Wennerstrom, 1994)와 일본 영어(Wennerstrom, 1994)에서 의문문과 문장 중간에 올림조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내림조가 사용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영어 사용자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영어식 독어(Anderson, 1970)에서 문장 가운데서 낮은 올림조를 사용하고, 성조언어를 배울 때는 영어식 중국어(Chiang, 1979)나 영어식 태국어(Radaravanija, 1965)에서 의문문의 경우, 내림 단어억양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서, 올림조가 사용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비성조언어자가 다른 비성조언어를 배울 때와 달리, 성조언어를 배울 때는 단어억양을 무시하고, 반대로 성조언어자가 비성조언어를 배울 때는 문장억양을 무시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 3. 경상도말과 서울말 억양의 한 비교

서울말에는 고저(H, L)의 성조가 없고 경상북도말에는 성조가 있다. 경상도말의 성조는 서울말에서는 장단으로 구분한다.

예: mal, H, 'horse'  
 L, 'language'  
 more, HL, 'sand'  
 LL, 'the day after tomorrow'

성조의 유무가 서울말과 경상도말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으나, 실제로, 3음절어에서 둘째 음절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경우는, LHL, 경상도말에서 90% 이상(Chung, 1991)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말에서도, 고립어로선 99% 까지 나타난다 (Seong, 1991: Koo, 1986). 이런 현상은 외래어에서도 나타난다. 예, 라디오, LHL. 따라서 단어억양은, 서울말과 경상도말이 성조의 유무에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단어억양에 이어 문장억양을 살펴보자. '사과'를 의문문과 평서문으로,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말했다 할 때, 서울말에서는 의문문에서는 둘째 음절이 더 높고, 평서문에서는 둘째 음절이 더 낮게 나타난다 (도표 참조). 의문문에서는 올림조, 평서문에서는 내림조의 영향으로 음절 간의 상대적 높이가 바뀐다. 경상도말에서 '사과'는 LH의 둘째 음절이 더 높은 단어인데, 의문문에서는 단어억양 그대로이나 H로 끝나는 음절 끝에 내림조가 따라왔다. 그러나 평서문에서는 수평조로 바뀌었다. 즉 단어억양과 문장억양의 방향이 같을 때는 그대로, 다를 때는 문장억양의 영향으로 수평조로 까지는 바뀔 수 있으나 서울말에서처럼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와같은 현상은 다른 성조언어인 중국어와 태국어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말이 경상도말보다 단어억양의 방향을 바꾸기가 쉬운 다른 예를 보자. 서울말에서는 어구의 마지막음절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된다. 예, 영애는 명래를 미워하니? (Koo, 1986). 그러나 읽기가 아닌 보통 대화에서는 마지막음절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style에 의한 변화는 경상도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말은 경상도말보다 음절간의 높낮이 변경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영어 억양을 배울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 4. 실험

### 4.1 실험목적

서울학생들이 경상도학생보다 고립된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 간의 상대적 높낮이를 더 자유롭게 변경시키는 지 살펴본다. 먼저 고립된 단어의 음절 간의 상대적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단어가 소개 될 경우를 살펴보았다. 51 단어 중 49 경우에 강세가 있는 음절이 높았다 (96%). 따라서, 강세가 있는 음절이 더 높은 것을 단어의 기본 억양으로 보았다. 예, raining의 경우 첫음절이 더 높을 때. 그 반대의 경우 즉 강세가 있는 음절이 더 낮은 문장들을 두 다른 집단의 학생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살펴보자 (도표참고).

## 4.2 방법

강세가 있는 음절이 더 낮은 아래의 문장들을 쓴 원고를 보고 원어민의 녹음을 듣고 먼저 따라한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 더 낮은 억양은 중등학교의 영어교과서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두 집단 모두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치하여 같은 억양을 낼 수 있는 지 살펴 보았다.

문장들은 낮은 올림조와 높은 올림조이며, 서울말의 마지막음절을 올리는 현상과 대부분의 국어단어들이 마지막에서 두번째 음절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서, 단어강세의 위치에 따라 분석했다. 또 경상북도말에 고, 저의 두 성조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올림조가 마지막 단어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어에서 시작하여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살펴 보았다. 단어의 위치와 단어강세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되는 단어는 밑줄을 그었으며 대치되는 단어는 괄호 안에 있다. 대치되는 단어는 음절 수와 강세의 위치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높은 올림조는 ?로 표시하였지만 학생들은 듣기에만 의존할 뿐 구두점을 보지 않았다.

- 1) 올림조가 마지막 단어에서 시작되고 강세가 첫 음절에 있는 경우 (Lsw)

That's not his father (mother)

Let me get some money (paper)

Don't worry (hurry)

Do stay a little longer (Do go a little further)

I am sorry (certain)

You have a lot to carry (bury)

I can't believe it's Monday (Sunday)

Wait a minute (moment)

Just a second (letter)

They've got a family? (fortune)

- 2) 올림조가 마지막단어에서 시작되지만 강세가 둘째음절에 있는 경우 (Lws)

Don't be afraid (scared)

Do you remember? (consider)

Borrow my eraser? (trousers)

It's not important? (surprising)

- 3) 올림조가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어에서 시작되고 강세가 첫째 음절에 있는 경우 (2Lsw)

I'll answer it (handle)

A metal one? (golden)

A coffee cup? (water jug)

The doctor's come? (teacher's)

Mother's home? (Father's)

Raining now? (Snowing)

The loneliest one? (loveliest)

She's a wonderful wife? (beautiful)

A dangerous road? (crowded)

In a history book? (an English)

He's an excellent man? (a powerful)

That's an interesting thought? (wonderful)

4) 올림조가 마지막에서 두번째 음절에서 시작되고 강세가 두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 (2Lws)

Would you be able to come at eleven, please (twelve)

What delicious food? (strange)

Heard the soprano sing? (tenor)

학생들의 녹음을 듣고 먼저 저자가 밑줄 친 단어의 강세가 있는 음절이 더 낮은 지를 살펴보고 맞다, 틀리다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한 원어민이 영어 억양을 제대로 모방했는 지를 평가했다.

#### 4.3 대상

전체 모방 실험에는 21명의 대구 혜화여고 학생과 20 서울 광남고 여학생이 참가했다. 중심 단어를 대치하는 실험에는 또 다른 19 대구 학생들과 25 서울 학생들이 참가했다. 경상도 학생들은 부모님이 경상도인이고 학생들도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서울 학생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 4.4 결과

한국학생들은 영어의 올림조를 평탄조로 발음하거나 마지막 음절만을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도표 참조). 그리고 마지막 음절을 올리는 경우에도 그 폭이 원어민의 경우보다 작았다.

표. 정확도 (저자평가) (원어민평가)

	Lsw	Lws	2Lsw	2Lws	Lsw	Lws	2Lsw	2Lws
경상	82%	46%	59%	11%	33%	14%	6%	3%
	168/206	38/83	147/251	7/62	69/206	11/81	15/250	2/62
서울	81%	35%	56%	11%	48%	22%	5%	0%
	159/196	28/79	132/237	9/58	96/198	17/76	11/233	0/59
Dif	1%	11%	3%	5%	15%	8%	1%	3%
Prob	.91172	.18062			.00218**	.15056		

전체 모방의 경우가 부분적 대치의 경우보다 나았다. 전체 모방의 경우, 단어의 위치와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는, 경상도 학생과 서울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마지

막 단어에 강세가 첫음절에 있는 것을 원어민이 평가한 경우 뿐이었다. 부분적 대치의 경우에도 전체 모방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 4.5 토론

저자와 원어민 사이의 평가에서는 저자가 원어민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그 차이는 낮은 올림조보다 높은 올림조가 더 컸다. 저자는 높이의 폭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원어민은 고려한 것이 차이의 큰 이유였다.

서울학생들이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더 잘 올리는 것은 국어에서도 있는 일이다.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어에서 올림조가 시작되어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 저의 두 성조를 갖는 경상도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고, 저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서울영어도 경상도 영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말에서도 비슷할 것 인지 연구가 필요하겠다.

단어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3음절어로서 LHL를 HLH로 바꾸는 경우이다. 경상도 학생과 서울 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LHL 유형이 경상도뿐아니라 서울말에서도 3음절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HLH 유형은 경상도말에서 쓰이지 않으며 서울말에서도 실제로는 쓰이지 않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5. 결론

서울말은 비성조언어이고 따라서 음절간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경시키는 것이 성조언어인 경상도 말에서 보다 자유로웠다. 따라서 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때 서울학생이 음절간의 상대적 높이를 더 쉽게 변경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LHL를 HLH로 바꾸거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어부터의 점증적 올림과 같이 서울말에서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은 경상도 학생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단지 비성조언어라는 것만으로 성조언어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올리는 것에는 차이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서울학생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ontrastive Analysis의 가정이 성조언어와 비성조언어 간의 억양에서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억양 지도에 있어서 올림조가 마지막 음절만이 아니라 문장강세가 있는 음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올림의 폭이 좁다는 것, HLH 유형, 점증적 올림조등 주의가 필요하다.

## Bibliography

- Anderson, Keith O., 1970, Some aspects of English language interference in learning German intonation, Ph. D. thesis, University of Colorado.
- Backman, N., 1979, Intonation errors in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of eight Spanish speaking adults, Interlanguage studies bulletin, 4, 239-266.
- Chiang, T., 1979, Some interferences of English intonation with Chinese tones, IRAL, 17, 245-250.
- Chung, Young Hee, 1991, The lexical tone system of north Kyungsang Korean, Ph. 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Jenner, B., 1976, Interlanguage and foreign accent, Interlanguage studies bulletin, 1, 166-195.
- Koo, Hee-San, 1986, An experimental acoustic study of the phonetics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Radaravanija, P., 1965, An analysis of the elements in Thai that correspond to the basic intonation patterns of English, unpublished PH. D. thesis, Columbia University.
- Selinker, L., 1992, Rediscovering interlanguage, Longman, London.
- Seong, Cheol-jae, 1991,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f word accent in standard Korean,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Wennerstrom, Ann, 1994, Intonational meaning in English discourse: A study of non-native speakers, Applied linguistics, 15, (4), 399-420.
- Willems, N., 1982, English intonation from a Dutch point of view, Ph. D. thesis, Utrecht.

도표 Sag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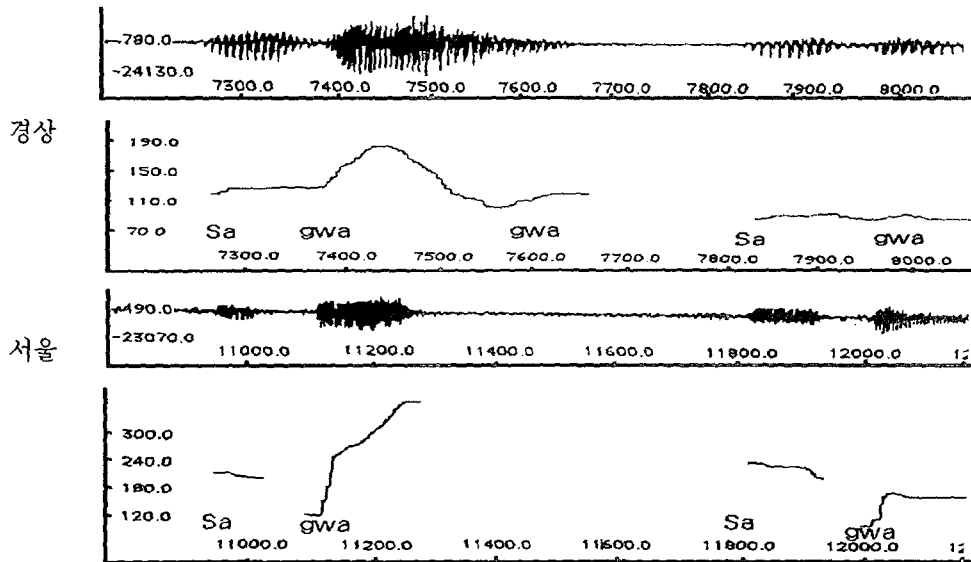


도표 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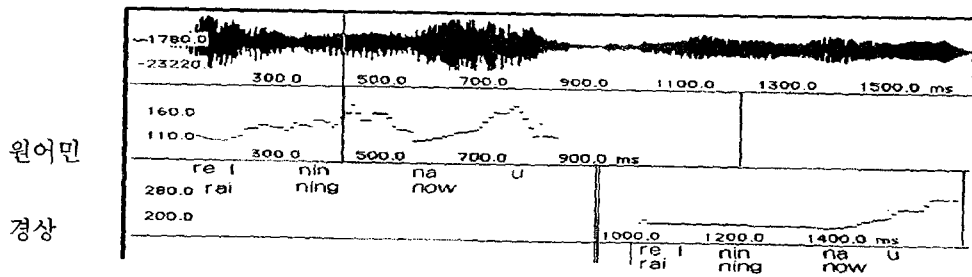


도표 Eraser

